경향신문

철원 DMZ 철새 탐조 관광 2월말까지 운영…아이스크림고지 개방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2022-01-03 15:02 입력 | 2022-01-03 15:03 수정

철원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생태탐조대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오는 2월말까지 'DMZ 철새 탐조관광'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되는 'DMZ 철새 탐조관광'은 평화전망대와 아이스크림고지, 철원평화문화광장 등을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DMZ 철새 탐조관광' 참가자들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위치한 DMZ두루미평화타운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탐조여행에 나서게 된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아이스크림고지(삽슬봉)는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와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멸종위기Ⅰ급인 두루미는 장수와 행운을 상징한다.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조성된 '국제두루미센터' 내부의 전시실 전경. 철원군 제공

추수 때 떨어진 곡식 등 먹을 거리와 물이 풍부한 철원평야와, 샘통, 토교저수지, 한탄강 여울 등은 해마다 두루미와 쇠기러기 등 몰려드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다.

올해도 두루미 1000여 마리와 재두루미 5000여 마리 등이 찾아와 논과 저수지 등을 옮겨 다니며 겨울을 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두루미 등 겨울 철새를 관찰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은 점을 고려, 'DMZ 철새 탐조관광'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이길리의 한탄강 주변 두루미탐조대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최근 재개장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두루미 월동지의 보전관리와 동북아 두루미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송읍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조성한 '국제두루미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30억원을 들여 연면적 961㎡,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 국제두루미센터는 전시체험공간과 영상교육실, 국제회의장, 영상회의실, 방문객 쉼터,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